

# 관광동굴의 재활성화에 대한 논의

김 원 진\*

## Revitalization of Commercial Caves

Won-Jin, Kim

**Abstract** : This study discussed revitalization of commercial caves. Transition of approach method about cave development is required. Each of the caves need differentiation strategy. In addition, the recognizing of the value of caves is required.

**Key Words** : commercial caves, revitalization, differentiation strategy

**국문요약** : 본 연구는 동굴의 이용가치를 제고하고 시대적 요구에 편승하여 동굴 특히 관광개발동굴의 재활성화와 개발 용도별 가치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관광자원 뿐만아니라 지역경제성장의 한 동력원으로서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동굴에 대한 개발접근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필히 지역실정과 해당 동굴에 대한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고 차별화된 개발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동굴의 가치증대 뿐만아니라 지역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인식될 것으로 보여진다.

**주요어** : 관광동굴, 재활성화, 차별화 전략

### I.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최근 지역의 관심사는 지역개발에서의 성장 동력을 선정하고 개발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와 지방화 셋방화 과정에서 지역성장에서 필히 요구되는 시대적인 요구라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역경쟁에서 살아 남을 것인가? 아니면 도태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결국 지속가능한 자연동굴의 개발로 이해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동굴과 같은 자연자원을 기반으로 행해지는 관광은 자연관광을 의미한다. 그러나 비교적 훼손되지 않은 자연자원에 대한 궁극적 목표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동굴관광은 지속가능한 자연관광 즉, 생태관광의 하나로서 파악되어야 한다. 동굴관광을 생태관

광의 하나로서 파악하고자 하는 이유는 생태관광은 보전, 교육, 관광객의 책임있는 행동, 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강조하기 때문이며 특히 부정적 관광영향의 최소화, 자연자원 및 지역문화의 존중, 지역의 보전 활동 지원, 지역사회에 편익 제공,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의 참여, 관광객 및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김향자, 2002).

자연동굴은 매우 독특하다. 관광현상에서 수요-공급 두부문에서 다른 관광자원 뿐만아니라 자연적 관광자원 부문에서도 매우 한정된 지역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관광자원이다. 자연동굴의 이용은 매우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으나 관광자원의 이용을 목적으로 개방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짧은 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여타 경쟁 관광자원의 개발과 다양성 그리고 기존 관광동

\* 건국대학교 지리학과 강의교수, geokwj69@konkuk.ac.kr

굴의 관광수요의 한계로 관광수요에서 정체되어 있다. 새로운 개발내용 또는 개발전략이 요구된다. 특히, 지연동굴이 지역의 대표 관광자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침체된 지역관광의 활성화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동굴의 이용가치를 제고하고 시대적 요구에 편승하여 동굴 특히 관광개방동굴의 재활성화와 개발 용도별 가치를 고려하여 차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운영함으로써 지역의 관광 자원 뿐만아니라 지역경제성장의 한 동력원으로서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 2. 동굴에 대한 연구동향

동굴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동굴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주로 지질학적, 지형학적, 생물학적 측면에서의 개발타당성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굴전반의 환경변화와 그에 따른 환경보존 및 관리에 대한 연구(홍충렬, 1998; 우경식, 2001; James, 1999; Mavlyudov, 2001; Spate, 2001; 坪井 正, 2001)와 동굴에 대한 관광자원 가치적 측면에서의 연구로서 동굴지역의 교통 및 관광적 특성(홍현철 외, 1993; 유영준, 1998a, 1998b), 동굴관광정보(김원진, 1999), 동굴이미지 및 관광객 행태(홍충렬·김원진, 2001)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에 정보시스템을 이용한 동굴에의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오종우, 1993; 이희연·차승훈, 2004)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동굴의 활용방안과 지속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학문적 제한을 두지 않는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접근하여 현 시점의 관광동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

시할 필요성이 있다. 아울러 동굴을 새로운 시각에서 개발접근 할 수 있는 연구토대와 관심이 요구된다.

## 3. 우리나라 자연동굴 현황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1,000여개가 넘는 자연동굴이 지질적으로 옥천대의 석회암지대와 제주도 현무암지대에 분포하고 있다. 자연동굴의 형태와 동굴 내부에 발달하는 동굴 생성물, 지형지물이나 미지형 등은 동굴의 종류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성인에 따른 자연동굴의 종류에는 용암동굴(화산동굴), 석회동굴(종유동), 해식동 등 그 외에 빙하굴, 파쇄굴, 절리굴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용암동굴과 석회동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굴은 공동의 형상 및 규모파악, 동굴형성과정의 규명, 미지형 및 동굴생성물의 분석, 미지형 및 동굴 생성물의 분석, 미기상 및 동굴생태계 탐색 등의 과정을 거쳐 그 동굴의 특성 및 학술적 가치로 보아 천연기념물 또는 지방문화재로 지정된다.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천연기념물 동굴은 총 21개이다. 지역별로는 북제주군과 삼척시가 각각 7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단양군이 3개, 익산시, 울진군, 영월군, 평창군이 각각 1개의 동굴이 지정되어 있다. 천연기념물 동굴 중 관광동굴로 개발된 동굴이 8개, 미개발된 동굴은 13개이다.

우리나라에서 지정된 지방기념물 동굴은 총 21개이다. 지역별로는 강릉시가 4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영월군이 3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북제주군이 각각 2개, 안동시, 문경시, 단양군, 화순군, 무주군, 합천군이 각각 1개의 동

굴이 지정되어 있다. 지방문화재 동굴 중 관광동굴로 개발된 동굴이 3개, 미개발된 동굴은 18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회동굴과 용암동굴 가운데 관광자원으로 개발되어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있는 관광동굴은 12개로 이 가운데 석회동굴이 10개이며 용암동굴은 2개이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 보면 강원도에 5개, 충청북도에 4개, 경상북도에 1개 그리고 제주도에 2개가 각각 분포하고 있다. 성인별로는 제주도의 동굴은 용암동굴이며 내륙의 동굴은 석회동굴이다. 또한 이들 관광동굴은 천연기념물(8개)과 지방기념물(3개)로 각각 지정되어 관리 및 보호 받고 있다.

## 4. 동굴별 특성을 고려한

### 차별화 전략

전통적으로 동굴의 이용에 대한 유형에서 실용적 가치의 경우, 동굴내부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예전부터 특수자원의 저장고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최근에는 폐기물 처리장을 비롯한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 개방동굴에 적용되거나 논의된 개발전략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크게 6가지 범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 1) 생태교육의 장

먼저 생태교육의 장으로서 동굴을 이용한 자연학습장을 들 수 있는데, 석회동굴, 화산동굴, 및 해식동굴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이기에 학생들이 실내에서 배운 내용을 살필 수 있는 현장학습장의 역할을 한다.

또한 몇몇 동굴의 경우 생태복원프로그램이

적용됨으로써 학습자가 직접 살아있는 동굴을 인식하고 경험할 수 있다. 최근의 생태자원의 보고로서 동굴에 대한 재인식을 들 수 있다.

#### 2) 체험학습의 장

최근 관광의 주요 성격가운데 체험학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데 동굴의 경우 다양한 체험활동 내지 관광을 할 수 있는 자원이다. 그 예로 특이한 동굴생성물을 모아놓은 동굴전시관(박물관)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언양의 자수정동굴과 같이 이전에는 자수정 광산이었던 곳을 인공적으로 개발하여 자수정을 전시해 놓은 자수정박물관, 금을 채굴하던 광산을 역사박물관으로 개조한 정선의 화암굴 등이 그 사례이다. 또한 역사체험장의 역할을 들 수 있는데, 이것은 가장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동굴에서 무시되어 오고 있다. 대부분의 동굴은 동굴 나름대로의 전설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울진 성류굴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 불상이 피난을 하였다는 聖留라는 전설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영월 고씨굴의 경우 임진왜란 당시 고씨들의 피난 장소였다는 점, 단양 고수굴의 경우에도 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점, 단양 온달굴의 경우 온달장군이 수련을 했던 것과 주변의 온달산성을 연결한 관광코스를 개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있다(유영준, 2005).

이는 동굴의 중요성과 가치를 야기시킬 수 있고 관련 학습 콘텐츠를 개발함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증대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자연동굴의 보존관리와 환경친화적인 동굴관광 개발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을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다.

### 3) 동굴탐험(Caving)

스포츠 관광에는 스포츠 이벤트관람과 스포츠관련 명소방문, 그리고 적극적인 스포츠참여 등의 세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이와같은 스포츠 관광은 다양한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며 특히 해당지역에 경제적 또는 지역개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동굴탐험은 “동굴을 탐사하여 태고의 신비와 살아 있는 역사를 만끽하는 동굴을 대상으로 하는 레저스포츠”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내륙에 카르스트지형의 발달로 인한 석회동굴과 해안지역의 해식동굴, 그리고 화산지형이 발달한 특히 제주도의 용암동굴 등 다양한 유형의 자연동굴이 분포하고 있으며 그 외 산업화 과정에서 인공적으로 개발된 인공동굴도 다수 산재하여 분포하고 있다.



출처: 한국동굴탐험협회, 2007.

그림 1. 동굴탐험(caving)

현재까지 대부분의 자연동굴들은 천연적으로 형성된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관광객들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수동적인 관광개발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다. 물론 최근에는 학습용이나 교육적 차원의 체험동굴에 대한 관심과 개

발이 일부 자연동굴에서 논의되고 있으나 양적으로나 질적 수준으로 볼 때 매우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동굴을 대상으로 각 동굴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동굴탐험용으로 개방 및 개발하는 것도 동굴탐험에 대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 할 수 있으며 해당 동굴이 분포하는 지역의 개발전략에도 어느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성장동력이 미비한 지역의 경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충분히 인식되어 질 수 있다(최방호,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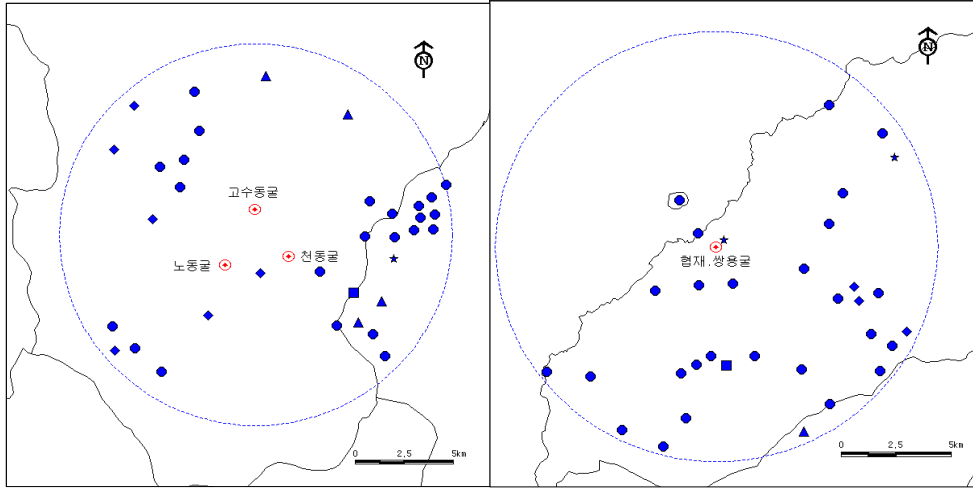
### 4) 학술연구의 장

학술적 가치로서 동굴내의 동굴생성물과 동굴생물의 생태는 중요한 학술조사의 대상이다. 동굴에서 자란 동굴생성물을 화학분석하면 과거의 지구환경에 영향을 주었던 기후변화를 추정할 수 있으며 동굴과 같은 특이한 환경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은 생명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제시한다. 특히 이러한 생물들은 인류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유전자를 제공할 가능성도 있다.

동굴과 관련된 주요 학문분야로는 지구과학, 지질학, 지형학, 생물학, 환경학, 관광학, 종교학, 지리학, 문화인류학 등을 들 수 있다.

### 5) 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개발

자연적인 관광동굴 주변에는 산, 계곡, 하천 등 경관이 수려한 자연관광자원과 연계된 새로운 관광루트를 개발함으로써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더욱더 증대시킬 수 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자연적관광자원 ▲문화적관광자원 ■사회적관광자원 ◆산업적관광자원 ★스포츠위락관광자원

그림 2. 주요 관광동굴 주변 유형별 관광자원의 분포

동굴이라는 요소만으로 지속적인 이용개발에는 한계가 있다. 주제별, 코스별 인접 관광자원과의 협력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현재 관광객의 수요욕구를 증대하고 관광자원 유형별로 나누어 상품화함으로써 관광객의 선호도를 향상시키고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부여할 수 있다.

6) 멀티 활용성을 고려한 가치증대

관광활동에 있어 이동성과 편리성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며 관광개발의 성공과도 직결된다. 결국 관광객의 만족도와 상관관계가 높다. 특히, 자연동굴에 대한 관광의 경우 산악지형으로 인해 많은 시간비용, 안전성 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모노레일과 같은 친환경적이고 미래형 첨단 교통수단시설의 도입으로 새로운



그림 3. 삼척시 대금굴의 모노레일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자체의 관광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몇 지자체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관광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 외 동굴전체를 테마파크로 개발함으로써 앞서 제시된 다양한 학습관찰/체험/탐험/학술연구/관광여가 등이 포함된 테마관광 프로그램화도 가능할 것이다.

### V. 요약 및 결론

우리나라의 경우 자연동굴이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관광자원으로 활용된 지도 벌써 40여년이 되고 있다. 개발 및 개방 초기부터 최근 90년대까지의 관광동굴은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자원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외부의 경쟁요소와 동굴자체의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극히 일부 관광동굴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침체를 맞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향후 동굴의 재활성화와 이용가치의 다양화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무엇보다도 동굴에 대한 개발접근방식의 전환이 요구되며 필히 지역실정과 해당 동굴에 대한 개발가능성을 검토하고 차별화된 개발전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동굴의 가치증대 뿐만아니라 지역의 중요한 자원으로서 인식될 것으로 보여진다.

#### 참고문헌

김병문, 2004, 관광지리학, 백산출판사.  
 김원진, 1999, "Internet을 이용한 관광동굴 내용분석 - 지자체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한국동굴학회지, 57-72.

김원진, 2006,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과서에 나타난 '동굴'컨텐츠 내용 분석, 한국동굴학회지, 72, 53-60.  
 김원진, 2006, 관광동굴이 포함된 철도관광상품의 시공간적 특성, 한국동굴학회지, 75, 65-71.  
 김주환, 2004, "동굴의 성인과 형태", 지리학연구, 38(4), 471-478.  
 김추운, 1993, 한국의 동굴, 대원사.  
 김향자, 2002, "관광자원으로서 동굴자원과 관광교육", 2002 삼척 세계동굴엑스포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36~247.  
 김홍운, 1989, 관광지리학, 일신사.  
 오종우, 2007, "모노레일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동굴학회 전반기 학술대회 자료집.  
 유영준, 1997, 동굴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 「동굴」, 49 : 31~44.  
 유영준, 2002, 동굴자원의 체험관광 활성화 방안, 「관광연구논총」, 14 : 119~138.  
 유영준, 2005, 에듀테인먼트 콘텐츠를 활용한 장소 마케팅 전략 연구 - 경주 문화관광을 사례로 하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이연택, 2003, 관광정책론, 일신사.  
 최방호, 2009, "스포츠 활동장소로서 동굴", 한국동굴학회지, 90, 27~33.  
 한국동굴탐험협회, 2007, 제 5회 한국동굴구조대회 요약집. 71p.  
 한국동굴학회, 2007, 개방동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CMIS(동굴관리정보시스템) 구축과 관광개발 차별화 전략, 과충연구조사사업.  
 홍시환, 1990, 한국동굴대관, 삼주출판사.  
 홍충렬·김원진, 2001, "관광동굴에 대한 이미지 및 행태 특성", 호텔관광연구, 7, 135~153.  
 홍충렬·김원진, 2004,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관광동굴의 관리체계에 대한 연구", 동굴학회지, 65, 27-36.  
 홍현철·김일봉·유영준, 1993, "고수동굴의 교통 및 관광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굴학회지, 33, 44~59.

- Fodness, D. and Murray, B., 1998, "A typology of tourist information search strategies", *Journal of Travel Research*, 37, 108~119.
- Ford, D. and P. Williams, 1989, *Karst geomorphology and hydrology*, New York, Chapman and Hall, 601.
- Murphy, P. E., 1993, "Community-driven tourism planning and residents references", *Tourism Management*, 14(3), 218-227.
- Spate, A., 2001, "Strategies and problems in the management of caves in Australia", paper presented 2th Seminar for Preservation of Natural Heritage, Korea, 31-74.
- <http://taebaek.go.kr>(강원도 태백시)
- <http://www.bukjeju.go.kr>(제주도 북제주군)
- <http://www.danyang.chungbuk.kr>(충청북도 단양군)
- <http://www.jeongseon.go.kr>(강원도 정선군)
- <http://www.knto.or.kr>(한국관광공사)
- <http://www.samcheok.gangwon.kr>(강원도 삼척시)
- <http://www.uljin.go.kr>(경상북도 울진군)
- <http://www.nic.or.kr>(한국인터넷정보센터)
- <http://www.mct.go.kr>(문화관광부)